

광주 동구청 복싱단 “복싱 명가로 우뚝 서겠다”

지난해 각종 전국대회 우수 성적 올시킨 선수단 개편...3명 교체 AG대표 배출·전국체전 금 목표 지난 1일부터 동계훈련 구슬땀

“원투 원투, 퍽 퍽, 더 강하게”.

31일 광주 염주체육공원 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복싱훈련장은 실새없이 짙고 스트레이트를 날리는 복서들의 몸놀림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링 위에선 감독이 미트를 끼고 선수를 조련시키느라 여념이 없었다.

광주 동구청 복싱팀이 올시즌 “복싱 명가로 우뚝 설 것”을 다짐하며 지난 1일부터 동계훈련에 돌입, 연일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동구청 복싱팀은 재창단 3년째인 지난해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 성적을 거두며 명가 도약의 기틀을 다졌다.

지난해 3월 이형석(25·56kg급)이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우승을 차지, 태극마크를 달았고 4월 전국종별선수권 동 1개(71kg급 이동진), 9월 실업협회장배 은 1개(56kg급 최현태)와 동 1개(75kg급 이동진)를 획득했다. 재창단 후 처음으로 출전한 10월 전국체전에서도 금 1개(한영훈)와 동 1개(이형석)를 따내는 성과를 올렸다.

지난해 명문팀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동구청 복싱팀은 올해도 ‘아시아게임 국가대표 배출과 전국체전 금메달 1개 이



광주 동구청 복싱선수단이 31일 광주 염주체육공원 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복싱장에서 동계훈련 도중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호섭, 황정환, 유기현, 이형석 선수.

상’의 성적을 올려 전국 최강팀으로 위상을 높이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대대적인 선수단 개편이 이뤄졌다. 기존 최현태가 은퇴하고 이동진과 정호철이 각각 중추시청과 경기 광주시청으로 이적함에 따라 3명의 선수를 새로 영입했다.

영입 선수는 김호섭(32·60kg급)과 유기현(29·69kg급), 황정환(21·52kg급)이다. 이들은 기존 이형석(25·56kg)과 함께 올시즌 각종 전국대회에서 광주 복싱을 빛내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동계훈련에 임

하고 있다.

선수들은 신명훈(52) 감독의 지도 아래 매일 체력 단련과 전문기술향상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오전 8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광주 월드컵경기장과 복싱훈련장에서 각각 인터벌 훈련과 서킷 트레이닝으로 체력 강화에 힘쓴다. 1주일에 2번은 무등산에서 산악훈련을 하며 심폐지구력과 근지구력을 키운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오후훈련은 전문기술훈련과 실전감각 향상을 위한 스파링을 진행한다.

야간자율훈련도 실시한다. 선수들은 오후 8시30분부터 40분간 부족한 체력을 연마하기도 하고 동영상도 보며 자신의 장단점 파악과 다른 선수들의 특징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는 7일부터 1주일 동안에는 울산과 부산 전지훈련을 통해 울산체육회, 부산시청팀과 함께 실전훈련도 진행된다.

신명훈 감독은 올시즌 목표 달성을 위해 선수별 특성에 맞춰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형석은 오는 2월 14일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당면 목표로 단점 보완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경험을 통해 게임운영 능력이 향상됐지만 여전히 지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체력 강화를 중점 두고 훈련하고 있다.

광주체고-남부대 출신인 황정환은 기본기와 웨이트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오른손잡이지만 스위치 복서를 할 정도로 복싱 센스와 순발력이 타고난 반면 경력이 짧아 다듬어지지 않아 기본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해사다.

한체대-국군체육부대 출신의 유기현은 근력 향상과 웨이트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왼손잡이인 유기현은 자세와 순발력, 센스가 좋아 순간적인 공격과 방어에 능한 장점을 가진 데 비해 170cm로 체급에 비해 작은 신체조건으로 체력 소모가 크다는 판단이다.

주장인 김호섭은 근력과 체력 키우기에 힘을 쏟고 있다.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갖춘 만큼 근력과 체력이 향상된다면 장점인 파워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신명훈 감독은 “지난해 좋은 성적을 거둬 의미있는 한해를 만들었는데 올해도 새로 영입된 선수들과 함께 광주 복싱을 빛낼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며 “아시아게임 대표선수를 배출하는데 우선 최선을 다하고 각종 전국대회에서 지난해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최동한 기자 cdstone@jinilbo.com

전남바이애슬론, 동계체전 사전경기 ‘메달 잔치’

금 6·은 1개 등 7개 메달

전남 바이애슬론이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사전경기에서 총 7개의 금메달 중 6개를 획득하는 등 메달 잔치를 벌였다.

전남 바이애슬론 선수단은 지난달 28~31일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센터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사전경기 바이애슬론 종목에서 금메달 6개와 은메달 1개를 수확했다.

전남 선수단은 대회 마지막날인 31일 남자일반부 계주에 티모페이 랍신·알렉산더 스타로두비치·김철영이 출전해 1시간 03분33초07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같은날 에카테리나 압바쿠모바·함해영·염혜진이 출전한 여자일반부 계주에서는 1시간01분44초03으로 은메달을 획득했

다. 전남 선수단은 앞서 지난 28일 혼성계주(함해영·에카테리나·알렉산더·랍신)와 29일 남자 바이애슬론 스프린트 10km(랍신), 여자 바이애슬론 스프린트 7.5km(에카테리나), 30일 남자 집단출발 15km(랍신), 여자 집단출발 12.5km(에카테리나)에서 각각 금메달을 따냈다.

티모페이 랍신은 출전한 전 종목을 석권하며 4관왕을 달성했고, 에카테리나 압바쿠모바는 3관왕을 차지했다.

김상욱 감독(전남바이애슬론 연맹 전무이사)은 “힘들고 고된 훈련을 버티며 좋은 성적까지 거둔 우리 선수들에게 고맙고,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학생부 선수 발굴 및 양성과 전남동계스포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한 기자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사전경기 바이애슬론 종목에서 금 6개와 은 1개를 획득한 전남 바이애슬론 선수단. 왼쪽부터 김미선 코치, 이인복 코치, 염혜진, 함해영, 김철영, 알렉산더 스타로두비치, 에카테리나 압바쿠모바, 티모페이 랍신, 김상욱 감독.

전남도체육회 제공

광주시청 장애인실업팀 우수 선수 4명 영입

양궁 김란숙·권유나 사격 박동안·박승우

광주시청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이 새로운 우수 선수들을 영입해 전력 보강했다.

31일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영입한 양궁 2명, 사격 2명 등 신규선수 4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이날 광주시청에서 진행했다.

신규 선수는 양궁의 김란숙, 권유나(이상 전 광주시장애인양궁협회), 사격의 박동안(전 광주시격연맹), 박승우(전 인천시청) 등이다.

김란숙은 2012년 런던 패럴림픽 금메달을 시작으로 2020 도쿄 패럴림픽 국가

대표, 2022년 제1회 순천만배 전국장애인양궁대회 금 5·은 2개,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금 3(시범종목 포함)·은 2개 획득 등 광주장애인양궁의 간판스타이다.

권유나는 2022년 제1회 순천만배 전국장애인양궁대회 금 1개,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시범 종목 금 1개를 획득하는 등 리커브 종목 유망주다. 권유나는 현재 노령화된 광주장애인양궁 실업팀에 세대 교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박동안은 2021년 장애인사격 공기소총 국가대표,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금 3·은 2개, 2022년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기 금 3개 등을 획득한 우수선수다.

박승우는 2022년 장애인사격 공기소총 국가대표로 2022 알아인 세계선수권대회 은 1·동 1개,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금 2·은 3·동 1개 등을 획득한 20대 유망 선수다. 박승우는 사격의 세대교체 차원에서 영입됐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사격박승우처럼 타지역 신규 선수 영입 시 숙소 월 임차료 지원 계획 등을 광주시와 협의하는 등 안정적인 주거환경 정착에 힘쓰고 있다”며 “신규선수들이 10월 예정인 항저우아시아게임과 국내외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광주시의 명예를 높이고 장애인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양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동한 기자

여수시청 김은미, 전국크로스컨트리대회 금

실업 여자부 개인전 29분42초

여수시청 김은미가 제17회 한국실업육상연맹 전국크로스컨트리대회서 여자부 개인전 금메달을 차지했다.

31일 전남육상연맹에 따르면 김은미는 지난달 29일 제주 서귀포시 강창학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열린 제17회 한국실업육상연맹 전국크로스컨트리대회(이상 8km) 실업 여자부 개인전에서 29분42초로 정현지(30분21초·논산시청)와 김유진(30분28초·경산시청)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수시청 박대성은 실업 남자부 개인전 4위를 기록했다.

박대성은 이장군(25분41초·청주시청), 김현우(26분29초·문경시청), 박종학(26분37초·한국전력)에 이어 26분38초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한국실업육상연맹과 제주도육상연맹이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실업 남자부 17개 팀(72명)과 여자부 16개 팀(46명), 동호인 남자부 10개 클럽 110명, 여자부 9개 클럽 62명 등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실력을 겨뤘다.

최동한 기자